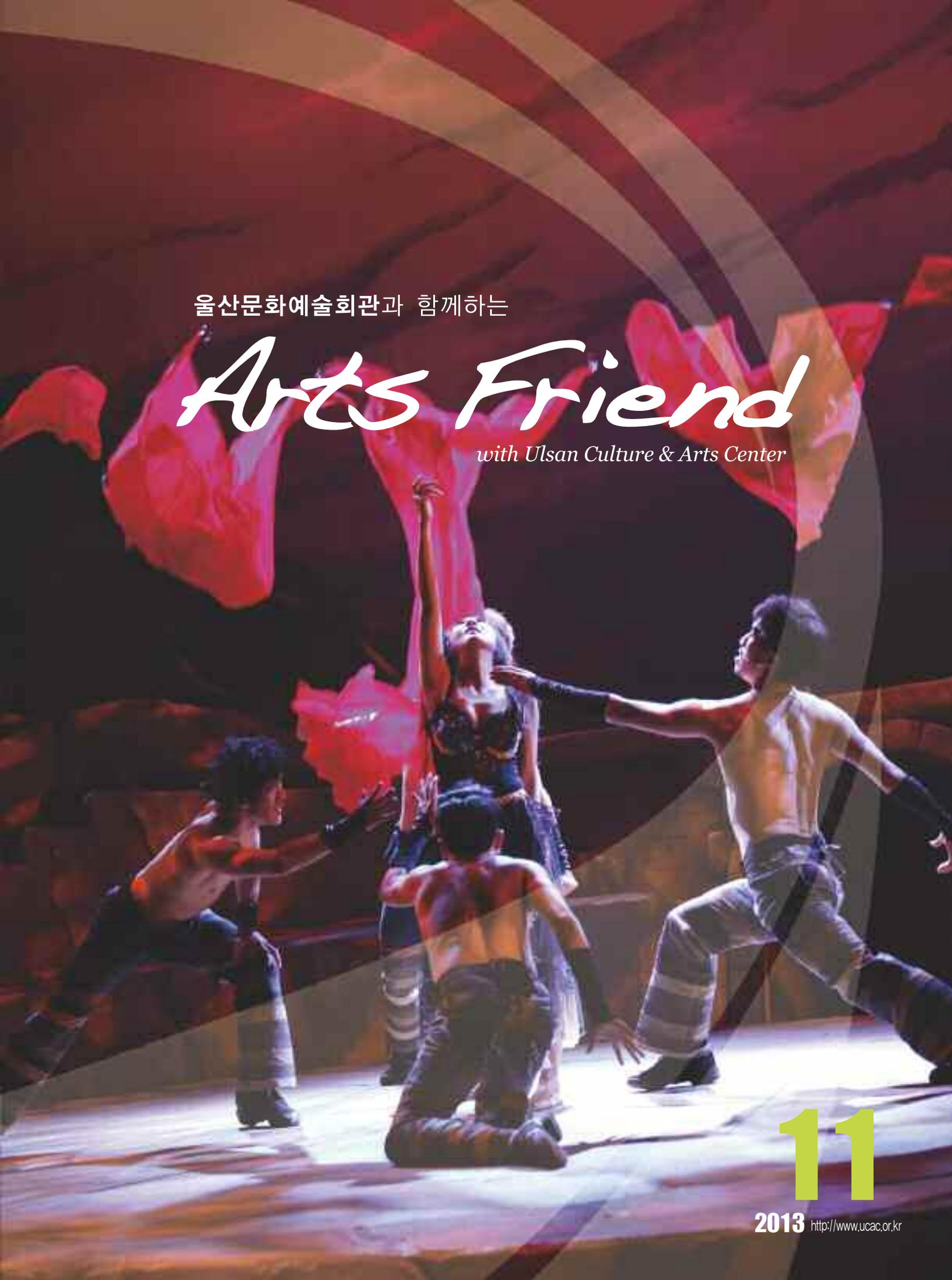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1

2013 <http://www.ucac.or.kr>

백조의 호수

백조의 호수

화가도영의 실용음악 퍼포먼스이다.
고전과 현대, 동·서양을 넘나드는 조화로운 음악으로
자이로프스키의 음악과 편곡을 한 한국 무용단 **백조의 호수**
가 등장한다. 울산시의 문화예술을 담은 대작이다.
자연을 인간의 정취로 바꾸는

2013. 11.14(목) ~ 15(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격_ R 10,000 S 7,000 A 5,000 (학생 30% 단체 10인 이상 20% 할인) 공연문의_ 275-9623~8, <http://www.ucac.or.kr>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 O / N / T / E / N / T / S



- 04 **기획공연** |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조운범의 파워클래식
세종솔로이스츠의 "세레나데"
스위트콘서트
11월 모닝콘서트 "희로애락"



- 12 **기획전시** | 올해의 작가 11월- 박선지
- 14 **울산시립예술단 공연** | 무용단 제32회 정기공연
교향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합창단 객원 초청 음악회
합창단 수능 음악회
교향악단 수능 음악회
청소년교향악단 제28회 정기연주회



- 24 **예술을 말하다** | 아름다운 비가(悲歌)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예술축제를 찾아서
오페라의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V)

- 32 **공연·전시가이드** | 11월의 공연·전시



11월 8일, 9일 뮤지컬 공연
"마리아마리아"의 한장면

울산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11월호 통권 169호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달동 413-13)
T.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 이형조 편집인 | 안종철
기획·편집 | 박용하, 고순영
편집 |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 예성인쇄기획 T.052-227-3884

당신의 심장으로 가는
10번째 감동 마리아!

뮤지컬 *10th Anniversary*

마리아 마리아

2013.11. 8(금) 오후8시
9(토) 오후3시 / 7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연진 : 윤복희, 전수미, 김중서, 고유진
- 입장권 : R석 · 3만원/S석 · 2만원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가

김중서 (예수 역)

윤복희 (소경 역)

전수미 (마리아 역)

고유진 (예수 역)

공연개요

대한민국 창작뮤지컬 중, 10년간 지속적으로 공연한 작품은 《사랑은 비를 타고》 〈영성황후〉 뿐일 정도로 대한민국 뮤지컬 시장에서 10년간 공연했다는 것은 "시장성, 관객의 만족도, 전문성"을 모두 겸비 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레전드가 되다!

2003년 3월 29일 초연 이후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작품상 수상 뉴욕브로드웨이 진출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룬 〈마리아 바리아〉는 10여년동안 좋은 공연성과를 보이며 한국 창작뮤지컬의 레전드로 기억될 것이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극찬한 뮤지컬넘버

헛웃 미스사이공, 에비타, 오페라의 유령 등 세계 뮤지컬의 신화적인 존재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대한민국 뮤지컬 〈마리아 바리아〉의 뮤지컬 넘버에 극찬하며, 해외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한 마리아의 감미로운 음악이 펼쳐진다.



시놉시스

인류 최대의 베스트셀러 바이블과
최가의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바리아

예수는 왜 그랬을까!
2천년이 지난 오늘도 마리아는
끊이지 않는 이슈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개천천년 당시 권력자였던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자 권력의 위협을 느낀 예수로 죽이려고 바리새인에게 사주한다. 바리새인은 예수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세계의 황금어장 마리아를 찾아가 예수를 유혹하고 하룻밤을 지낸 뒤 광활에서 벗어나 안티바스 정원과 함께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로 보내겠다는 지명을 한다.

이에 마리아는 생부성을 설기 위해 예수를 유혹하려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로인해 마리아는 바리새인에게 주임을 당할 위협에 처하지만, 결구침명기 순간에 예수는 마리아를 구한다. 한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위협한 여자와 함께 있는것을 못마땅히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을 설리준 예수를 자신의 친애 포대한다.

그러나 예수는 창녀집에서 나왔다는 것이 헛어가 되어 어려움이 초중게 되고, 마리아는 다시 희망기에 빠져 과거 크라병정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어린 시절과 현재의 고통속에서 원통이 하지만, 다시금 예수로 크나 상사관은 영혼을 구원받게 된다. 하지만 예수는 가장 만일인 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의인을 당한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마리아는 홀로 남아 고통지 예수의 죽음을 지켜본다.





조운범의 파워클래식

동물의 사육제, 생상스

2013. 11. 16(토) 오후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연진 : 코르텟엑스(조운범, 박소연, 김희준, 임이랑)
윤영민(메조소프라노)
신지아(피아노)
- 입장권 : 전석 1만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중·고생 50%할인
- 등 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예전의 우리나라에서는 생상스를 그냥 '생상' 이라고 불렀다. 프랑스어의 특성상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s 를 발음하지 않은 것인데, 인명(人名)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생상스라고 불리는 것이다(그래도 궁금하다면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 바란다). 하지만 우리 나이의 사람들에게겐 아직도 '생상' 이 더 익숙한 걸 어찌하란 말인가.

생상스는 183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당시의 파리는 낮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는 도시였다. 그 무렵의 프랑스에서는 생상스가 좋아했던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활동하고 있었고, 헝가리의 리스트나 독일의 바그너는 자신들보다 한참 어린 생상스의 실력을 인정해주었다.

작곡가가 아닌 오르간 연주자로서 말이다. 생상스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는데 부유하신 고모가 도와줘서 경제적으로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는 아들에게 음악 공부를 시키며 많은 애정을 쏟았는데, 생상스 스스로도 "나는 글보다 음악을먼저 배웠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 이 대목에서 퀴즈 하나를 내겠다. 생상스는 몇 살 때 피아니스트로 데뷔했을까? 정답은 무려 '열살' 이다!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니 그가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 것은 당연하고, 16세에 이르러서는 오르간 콩쿠르에 출전, 1등을 하기도 했다.

생상스는 졸업 후 오르간 연주자가 아닌 작곡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은 생상스의 연주를 오랫동안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고, 특히나 바그너가 작곡한 곡을 외워서 연주했을 때는 더욱 더 그랬다. 아마 '오르간주자 생상스'를 잃는 것이 못내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만 잘해라!"

1. 죽음의 무도 Danse Macabre

19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교향시이다. 생상스가 1874년 작곡해서 1875년 파리에서 초연되었다. 왈츠리듬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몽티니 드모리 부인에게 헌정되었고, 피겨 여왕김연아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서 더 유명해진 곡이다.

2.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Samson Et Dalilah - Mon Coeur S'ouvre A TaVoix

고대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전체 3막으로 된 오페라이다.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집에 찾아온 삼손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삼손의 사랑의 맹세에 반색을 하며 화답하는 곡으로 우아하고 관능적인 곡이다.

3. '웨딩 케이크' 현과 피아노를 위한 왈츠 카프리스 Wedding Cake, Caprice-Valse For Piano & String in Ab Major Op. 76

1885년 피아니스트인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작곡했다. 짧은 곡이지만 가볍고 매우 화사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게 하는 아름다운 곡이다.

4.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The carnival Of The Animals - The Swan

<동물의 사육제> 14곡 중 13번째 곡이다. 생상스는 너무 장난스럽고 익살스러운 <동물의 사육제>를 연주하지 말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가 사망한 후 그의 대표적인 곡이 되었다. 백조는 조용한 호수 위를 미끄러져 가는 우아한 백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5. 현악사중주 2번 3악장 String Quartet No.2 Op.153 3th mov

83세에 작곡한 두 번째 현악사중주 곡은 아주 재미있다. 마지막 악장에서 현악기 주자들은 아무 손가락도 짚지 않은 채 각각 바이올린 개방현인 미-라-레-솔 그리고 비올라와 첼로 개방현인 라-레-솔-도를 튕기는 것으로 곡을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 이 곡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소리를 집어 넣는다.



* 협연 : 윤영민(메조 소프라노)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졸업
- 빈 프라이너 음악원 성악과 및 오페라과 졸업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잔니스끼끼>, <헨젤과 그레텔>, <피노키오의 모험>, <코지 판 뚝뚝>, <버섯피자> 주연 출연
- 빈 독창회 및 도쿄 오페라시티 리사이트홀, 요코하마 간나이 홀 연주
- 전주대 콩쿠르 1 위, 목원대 콩쿠르 2 위, 호남예술제 은상, 이태리가곡연구회주최 콩쿠르 입상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학교 영재 아카데미 출강



* 협연 : 신지아(피아노)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전문사 졸업
-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부산음악교육위원회 콩쿠르 1 위
- 삼익 피아노 콩쿠르 은상
- 한일 청소년문화교류 일본초청연주(후쿠오카)
- 이태리 티볼리 국제음악캠프 참가 및 연주
- 한중일 연합일본초청연주(도쿄, 오사카)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산예술중고등학교, 경남예술고등학교 출강
- 현대음악앙상블 KARIEN 멤버



* 콰르텟엑스



전통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들며 현악사중주의 개념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젊은 연주팀. 2002년 <거친바람 성난파도>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데뷔한 이후 <버전 2.0>, <B9>,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컴플리트>, <히스토리>, <베토벤 백신> 등 정규 프로젝트마다 유력 언론과 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규 데뷔앨범 <사콘느>(2005년)와 2집 <히스토리>(2007년)를 발매하였으며, 통영국제음악제(2005년)와 일본-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2006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2010년)에서 초청 연주를 가졌다. 공연, 음반, 축제뿐만 아니라 영화(<호로비츠를 위하여>), 방송(KBS <TV특강>, <클래식 오디세이>, <낭독의 발견>, <환경 스페셜>, MBC <김동률의 포유>, <문화사색>, <TV특강 인생은 아름다워>, <이재용, 정선희의 기분좋은 날>, EBS <TV평생대학>) 등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활동으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렬한 현악사중주단'으로 불리며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조윤범 제1바이올린/리더
- 박소연 제2바이올린
- 김희준 비올라
- 임이랑 첼로

세종솔로이스츠의

세레나데



세종솔로이스츠의 응집력있는
앙상블로 만나는 다채로운 세레나데

2013. 11. 27(수)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장권 : 전석 3만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최고 수준의 현악 앙상블’, ‘놀랄만큼 뛰어난 앙상블, 빛나는 명연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영국 더 타임즈 등 세계 우수 언론의 극찬을 받는 세종솔로이스츠가 2013년 ‘세레나데’라는 주제로 관객들을 만난다. 올해로 창립 19주년을 맞이한 세종은 특별한 2013년을 보내고 있다. 5월, 세계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 길 샬함과 함께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에서 유럽 투어 공연을 펼쳤고, 그 모습을 담은 '글로벌 성공시대-천재 음악가를 키워낸 바이올리니스트, 강효'편이 KBS1 TV에서 방영되며 국내 팬들에게 소개되기도 했다. 클래식 본고장인 유럽에서 더욱 높아진 한국문화예술의 위상을 보여준 세종솔로이스츠, 그들은 국내 연주 단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발자취를 남기며 독보적인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선구적 행보는 음악적인 면에서도 이어진다.

세종솔로이스츠에게 보내는 찬사에는 이러한 행보와 뛰어난 연주 실력만큼이나 색다른 레퍼토리를 개발해내는 그들만의 독창성, 그리고 도전 정신에 대한 호평이 뒤따른다. 이는 강효 예술감독의 독특하고 탁월한 프로그래밍에 세종의 우수한 연주가 적절히 조합된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강석희, 리차드 다니엘푸어 등 수많은 현대음악 작곡가의 작품을 세계 초연으로 선보여왔으며, 탄 둔, 마우어 등 자주 연주되지는 않지만, 음악적으로 가치 있는 작곡가의 곡들을 발굴해 연주해왔다.

이번 투어의 프로그램에서도 보기 드문 레퍼토리들이 눈에 띈다. 이번 공연에서 세종솔로이스츠는 비발디의 <사계>로 유명한 작품번호 8번 <화성과 창의의 시도> 중 잘 알려지지 않은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인데, 국내 무대에서 흔히 만나지 못했던 곡이기에 더욱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이 곡은 비



발디가 오랫동안 일했던 베네치아 피에타 고아원의 학생들을 위해 직접 작곡해 제자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낸 곡으로 알려져 있고, 전통에 속박되는 것을 탈피해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발상을 표현한 곡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인이 사랑하는 가곡으로 손꼽히는 작곡가 김동진의 '수선화'를 클래식 선율로 재해석해 연주한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김동명 시인의 시를 가곡으로 읊긴 이 곡은, 사랑하는 대상을 연모하는 노래라는 뜻의 '세레나데'에 걸맞는 선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가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재조명하는 세종솔로이스츠의 장기적 목적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또한 '세레나데'는 연인에게 부르는 사랑 노래라는 뜻 외에, 다악장의 기악 앙상블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될 바르톡의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역시 세레나데와 같은 유형의 곡이다. 세레나데와 디베르티멘토는 가볍고 오락적인 음악이라는 기능적 측면, 다양한 실내악 편성으로 작곡된 다악장의 기악 모음곡이라는 형식적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같은 범주의 악곡으로 분류된다. 바르톡의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는 밝고 무겁지 않은 구조 안에서도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곡이다. 이처럼 세종솔로이스츠가 연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세레나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이번 공연의 감상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할 때, 비로소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 좋은 연주를 선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기에 더 빛이 나는 세종솔로이스츠, 올 겨울 관객에게 바치는 그들만의 세레나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세종솔로이스츠(SEJONG SOLOISTS), 현악 오케스트라**

〈CNN〉이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라고 극찬한 세종솔로이스츠는 1994년 강효 줄리아드대학 교수가 한국을 주축으로 8개국 출신, 최정상 기량의 젊은 연주자들을 초대하여 현악 오케스트라를 창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400회가 넘는 연주회를 가져왔다. 세종솔로이스츠는 카네기홀과 케네디센터 자체기획공연에 초청받은 유일한 한국 단체이며 이외에도 링컨 센터의 엘리스 톨리홀, 런던 카도간홀, 파리 살 가보, 일본 산토리홀, 베이징 NCPA 콘서트홀, 타이완 국립예술극장 등의 국제 무대에서 연주를 해왔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아스펜 음악제의 상임 실내악단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상주 실내악단으로 활동했다. 세종솔로이스츠는 세계 각지의 언론과 음악평론가들로부터 '보기 드문 음



집력, 아름다운 음색, 신선한 연주를 보여주는 최고의 앙상블'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전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인 한국계 작곡가 Earl Kim의 작품을 뉴욕과 아스펜 음악제에서 초연했으며 미국의 저명한 말보로 음악제에 〈Earl Kim 장학금〉을 설립했다.

또한 한국 현대음악의 독보적인 작곡가 강석희에게 〈평창의 사계〉를 위촉, 강원도에서의 세계 초연을 시작으로 파리 살 가보, 런던 카도간홀, 베이징 중앙세기극원,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연주했다. 세종솔로이스츠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 참가로는 FIFA 총회이벤트공연,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관 개관기념식' 연주, 그리고 UN에서 열린 2004년 아테네올림픽 성화봉송행사에서 뉴욕시 선정 연주자로서 공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NPR)와 유럽방송연맹(EBU)은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를 매년 수차례 정기적으로 세계에 방송하고 있는데 美 공영 라디오의 '오늘의 연주' 프로그램에서는 세종솔로이스츠를 '2003년 젊은 상임 예술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CNN의 초대로 연주한 2002년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및 2003년 추수감사절 특별공연은 미국 전역에 방영되었다. 세종솔로이스츠는 2003년 KBS 해외동포상_예술부문, 2008년 제3회 대원음악상 특별공헌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첫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 예술감독 강효**

강효는 지난 30년 동안 바이올린 연주자, 교육자, 예술감독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거쳤다. 그는 20년 이상 명망 높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의 상임 실내악 연주자로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초연했고 레온 플라이셔, 피나 카르미렐리, 윌터 트럼플러, 앙드레 와츠 등과 함께 연주했다. 강효는 줄리아드 대학과 예일대학교 음대에서 바이올린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4년에는 석좌교수로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했다. 1978-2005년 콜로라도 아스펜 음악제 음악학교, 1994-1998년 일본 나가노 아스펜 음악제에 교수진으로 참여했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멕시코, 중국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다. 길 사함과 장영주, 김지연을 비롯한 그의 많은 제자들이 명망 있는 국제 콩쿨에서 우승하고 세계 일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2년 봄 KBS TV는 〈천재들의 수업-줄리아드 강효 교수〉를 제작하여 방영했다. 그는 2003년 10월 한국 정부로부터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2003년에는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받아 2004년 제1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발족시키는데 산파 역할을 했다. 그 후 7년 동안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한국의 대표 음악제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제5회 대원음악상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 태생인 강효는 서울대학교에서 배석빈과 안용구를, 피바디 대학에서는 벌 세노프스키를, 줄리아드 대학에서는 도로서 딜레이를 사사했다.



신의정



이창용



정선아

Sweet Concert Season 6

정선아의 2013년 마지막 스위트콘서트!!

정선아의 뮤지컬갈라콘서트

2013. 11. 7(목)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출 연 : 정선아, 신의정, 이창용, 아이린
- 입장권 : 1만5천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 가능

스위트콘서트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뮤지컬 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 최정원 등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거쳐간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대표적인 상설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2013년, 총 6회의 스위트콘서트를 “정선아”와 “조휘”가 각각 3회씩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이번 11월 7일 스위트콘서트는 “정선아”가 진행하는 마지막 스위트콘서트이며 12월13일은 “조휘의 뮤지컬 토크”가 마지막으로 공연된다.

오는 11월 7일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정선아의 사회로 진행되는 스위트콘서트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루시 역으로 출연했던 ‘신의정’ 과 인당수 사랑가의 몽룡역으로 출연했던 ‘이창용’ 을 만날 수 있다.

정선아와 함께 무대 뒷이야기들을 통해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들려준다.



* 정선아 | 뮤지컬 렌트 / 맘미아 / 지킬 앤 하이드 / 헤어화 / 나인 / 재너드 / 드림걸즈 / 모차르트 / 아이다 / 아가씨와 건달들 / 에비타 / 광화문 연가 / JCS, 위키드(예정)

- 2008, 2009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조연상
- 2010 더 뮤지컬 어워즈 인기상, 한국 뮤지컬 대상 인기상
- 2012 골든티켓 어워즈 뮤지컬 여우주연상
- 2013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주연상, 한국 뮤지컬 대상 여우주연상



* 신의정 | 렌트 / 위대한캐츠비 / 사랑은 비를 타고 라디오스타 / 돈주앙, 싱글즈 / 궁, 카페인 / 페임, 콩칠팔 새삼육 / 지킬 앤 하이드 / 스파어랏



* 이창용 | 알타보이즈, 에이브라함 역 / 이블데드, 멀티 (시즌2 애쉬 역) / 쓰릴미, 네이슨 역 / 돈주앙, 라파엘 역 / 내마음의 풍금, 강동수 역 / 어쌔신, 주세피 장가라 역 / 로맨스 로맨스, 남편 역 /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앨빈 역 / 김종욱 찾기, 김종욱 역 / 젊음의 행진, 왕경태 역 / 년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철수 역 / 맨 오브 라 만차, 산초 역 / 트레이스 유, 우빈 역 / 투모로우 모닝, John 역 / 풍월주, 사담 역 (일본) / 인당수 사랑가, 몽룡 역

Morning Concert Season 6

음악으로 만나는 한편의 인생극장

희로애락

음악 속에 빠져들어가, 잠시 사랑에 빠져보고, 조국을 위해 울며 노래도 해보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목숨도 끊어 보자.
열정과 사랑이, 삶에 대한 고뇌, 노래 속에 그려진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뜨겁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

2013. 11. 28(목) 오전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장권 : 전석 7천원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할인 적용)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희

사랑의 기쁨, 환희

- 남몰래 흘린 눈물(사랑의 묘약) - 테너
- All I Ask Of You(오페라의 유령) - 소프라노

로

질투의 광기, 분노

- 지금 이 순간(지킬앤하이든) - 테너
- 복수의 이중창(리골레토) - 소프라노, 바리톤

애

이별의 아픔, 슬픔

- 울게하소서(리날도) - 소프라노
- Con te partiro(그대와 함께 떠나리) - 테너

락

신나는 인생, 즐거움

- 축배의 노래(라트라비아타) - 테너, 소프라노
- 파파게노 이중창(마술피리) - 바리톤, 소프라노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들이 부담없이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옥내 주차장에서 당직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상설 전시공간 “갤러리 쉽”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올해 6월부터 지역의 유망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육성하는 지원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참여작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올해의 작가 개인전」이 지난 6월 합동전시 이후 7월부터 매월 참여작가 6명의 릴레이 개인전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11월 전시의 주인공은 박선지 작가이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한 박선지 작가는 울산, 부산, 경주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 단체전 참가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 이번 전시에는 “Memory-기억”을 주제로 한 연작을 선보인다.

박선지 작가의 작품은 언뜻 보면 추상화 같지만, 관람객은 선과 면, 색의 겹침을 속에서 의자의 모티브를 찾아낼 수 있다. 작가는 “인간의 기억은 여러 가지 꿈과 생각, 표현들이 무의식중에 일부가 저장되고 중첩되는 가운데 만들어



• Memory(기억) <박선지 作>



• Memory(기억) <박선지 作>



• Memory(기억) <박선지 作>

11 월의 작가 - 박선지展

11. 1(금)~11. 30(토), 30일간
갤러리 씬

지는데 이 기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상상하고, 때로는 과장된 생각을 지우기도 하며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도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평면회화에서 물감을 겹치고, 선을 만들고, 면을 겹쳐나가는 과정에 빗대어 표현하였다고 한다.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작가가 끊임없이 화면 속에 선과 면을 중첩시키고, 덧입히면서 기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고, 감상 후 전시장 한켠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작가와 같이 우리의 기억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 11월의 작가 / 박 선 지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서양화 전공)
- 개인전 4회(서울, 부산, 울산)

■ 수상

- 신라미술대전 특선 1회, 입선 4회(2006-2010)
- 한마음미술대전 입선 2회(2007, 2009)

■ 단체전

- 2013. 작은 네모로 본 세상(경주)
- 2012. 신입회원 특별전(울산)
세가지 사유(울산)
'경계' 전 (경주)
아시아 예술제 한.중전(울산)
나눔예술제(울산)
동국네 박씨전(경주)
동경 긴자올빼미전(일본)
- 2011. 아트 울산 '빛' 신진작가 초대전(울산)
울산미술협회전 '가을미술제' (울산)
한, 중 교류전 · 반도갤러리 초대전(중국)
부산 국제 아트페어 초대작가전(부산)
경주문화엑스포 특별전(경주)
네 개의 사유(울산)
- 2007~12. 울산미술작가회전 · 이랑전(울산)
- 현재, 한국미술협회, 울산미술협회,
울산미술작가회, 이랑회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72삼산동
삼신현대아파트 105동 508호
☎ 010-5127-1701
psj701@hanmail.net



• 작업 중인 박선지 작가

클래식 발레의 백조를 한국적 감성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다

흑백기억의 노랑이여



2013. 11. 14(목), 15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안무 및 연출 :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 대 본 : 박용하
- 안무지도 : 박정은
- 조 안 무 : 이원국, 정용진
- 특별출연 : 이원국, 김성수, 김미자
- 음악감독 : 김백찬
- 조명감독 : 원동규
- 무대제작 : 어울림&김명호
- 의상제작 : Mr. Lee
- 분 장 : 소인경
- 입 장 권 : R석 · 10,000원 / S석 · 7,000원
A석 · 5,000원
(회관회원 30%, 단체 20% 할인)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력 넘치는 울산의 풍경을 담은 대작(大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편곡한 한국무용관 **백조의 호수**
 고전과 현대, 동·서양을 넘나드는 조화로운 춤으로 한국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AD 암각화 이후 울산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작품으로 신라시대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계변천신 설화를 통해 아름답고 푸른 생태환경도시 울산을 부각시키며 풍요로운 울산을 의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울산광역시가 지향하는 생태환경도시에 걸맞게 삼호대숲에서 번식하는 백로의 일상을 춤으로 표현하였다.
 클래식 발레인 백조의 호수에서 모티브를 얻어 한국적 감성으로 표현되는 공연이며, 발레와 한국무용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풍요로운 울산 도시환경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일간 2일 2회 더블 캐스팅으로 무용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표현방법을 감상할 수 있다.

안무/연출



김상덕 예술감독

특별출연



이관국



갈미자



김상수

주요배역



오승미 (14일, 15일)



최희정 (14일, 15일)



노현정 (14일, 15일)



허상희 (14일, 15일)



현중정 (14일, 15일)

프로그램

- 프롤로그_ 계변천신대숲
- 1장_ 백조의 노래
- 2장_ 호박의 사랑이야기
- 3장_ 호박의 행복이야기
- 에필로그_ 호박의 행복이야기



제170회 정기연주회 명작 VII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시립교향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는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교향곡 6번 비창을 시민들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이번 협연은 세계적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하모닉 트럼펫 수석 주자인 가보르 타르코비의 아시아 투어의 일정으로 울산에서 협연을 하게된다.



* 지휘 /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2013. 11. 22(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 협연 : 트럼펫 / 가보르 타르코비
- 입장권 : R석·1만원 / S석·7천원
A석·5천원(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 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 헨델 : 수상음악

이 곡에는 이런 일화도 있다. 헨델이 하노버 궁정의 악장으로 있었을 때 영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하노버의 게오르크 선제후에게 기한부 휴가를 얻었다. 그러나 막상 영국에 와 보니 돌아갈 생각이 없어져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게오르크 선제후의 미움을 사던 차에 영국의 앤 여왕이 별세하자 게오르크 선제후는 조지1세로 영국의 왕에 오르게 되었다. 이 딱한 사정을 안 몇몇 고관 친구들이 묘안을 냈다. 즉 1715년 여름, 왕이 테임즈 강에서 뱃놀이를 즐길 때 몰래 배한 척에 관현악단을 태워 헨델이 만든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음악이 왕의 마음에 들어 다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일화가 확실한 것은 아니나 그만큼 이름 있는 작품이다. 이 곡은 이탈리아적인 음악 작품으로 모두 20곡으로 구성되었는데, 아주 밝고 명랑하다.

■ 하이든 : 트럼펫 협주곡

1796년에 작곡된 것으로 하이든에게는 유일한 트럼펫 협주곡이며, 그것은 두 번째 런던 여행에서 돌아온 이듬해였다. 그 당시 빈 궁정의 혼주자 바이에더거(Anton Weidinger)가 고안한 새로운 메카닉을 가진 트럼펫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반음계도 자유로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악기였

으나, 이것도 1813년, 블뤼멜이 현대의 트럼펫을 발명함으로써 점차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오케스트라 편성은 현 외에 각 두 개의 플루트 오보에, 파곳, 호른, 트럼펫과 팀파니이다.

제1악장 알레그로 Eb 장조 4/4박자 p 로 시작하는 제1주제가 오케스트라로 제시되며, 곧바로 똑 같은 제1주제를 솔로가 이어받아 돋보이게 한다.

제2악장 안단테는 Ab장조로 연주되는 6/8 박자의 평화롭고 침착한 주제에 의한 자유로운 세도막 형식.

제3악장 알레그로는 다시 Eb 장조로 연주되는 2/4 박자의 경쾌한 종곡이다.

■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 6번 “비창”

차이코프스키의 최대의 걸작인 이 제6번 교향곡은 1893년 10월28일,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그의 말대로 그가 제일 좋아하는 교향곡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의 작품 중 최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초연 했을 때는

그리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1893년 11월1일, 그가 요리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냉수를 마셨는데, 그 당시 콜레라가 유행했던 때이다. 다음 날 그는 콜레라에 걸려 그만 작고하고 말았다. 그가 죽은 후 11월18일에 이 작품을 재차 공연했을 때는 청중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마지막 악장에서는 흐느껴 우는 청중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 표제를 처음에는 그 동생이 비극적이란 말로 생각했으나 차이코프스키는 이어 응하지 않았다. 다시 동생이 비창이 어떠냐고 하자 차이코프스키는 좋은 표제라면서 악보에 그 같이 써 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차이코프스키는 그 당시 인생에 대한 절망감이 더욱 심해졌다. 그러기에 이 작품에는 구제 될수 없는 번민이 잠재해 있다. 여기에는 끝없는 비탄과 걱정, 그리고 인간에의 동정을 담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세상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고민과 비애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 할수 있다.



* Trumpet : 가보르 타르퀴비



가보르 타르퀴비는 1969년 헝가리 에스트라곰의 음악적 전통을 가진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9세에 아버지 이스트반 타르퀴비로부터 첫 트럼펫 레슨을 받았으며, 헝가리 금관음악의 전통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리히터 야노스 콘서바토리 수료후, 프란츠 리스트 사범대학, 그리고 프란츠 리스트 음악원을 졸업하였다. 뷔르텐베르크 필하모닉 수석 트럼펫주자로 커리어를 시작한 후,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한후, 1999년 바이레른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 트럼펫 주자로 활동 하였다.

2004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솔로 트럼펫 주자로 활동 중이며, 오케스트라 활동 이외에도 실내악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오스트리아 금관 오케스트라와 가보 타르퀴비가 창설한 비엔나-베를린 금관 5중주는 베엔나 클래식 전통에 기반을 두고 근대와 현대의 새로운 페파토

어 발굴을 통한 활발한 활동을 매시즌 펼치고 있다. 꾸준히 함께 활동하는 지휘자로는 사이먼 래틀,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로린마젤, 마리스 안손스, 주민메타, 세이지 오자와 등이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아카데미의 교수로 활동 중이다. 2008년 이후 스위스의 투도 클래식 레이블의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모이차 에르트만과의 이탈리아인 트럼펫 협주곡 앨범과 밤베르크 심포니와의 고전 트럼펫 협주곡 앨범은 일반 관객과 비평가 그룹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프로그램

- 헨 델 : 수상음악
- 하이든 : 트럼펫 협주곡
-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6번 “비 창”

객원지휘자 초청

음 악이
주 는

Joy of Music

기쁨

2013. 11. 5(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지휘 : 김순정 (장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합창지휘 겸임교수)
- 출연 : 울산시립합창단
- 입장권 : 전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 등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

객원지휘자로 참여하는 김순정 지휘자는 한국에서 작곡을 전공(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하고 미국에서(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USC) 합창지휘 박사를 취득한 후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국립합창단, 부천, 성남, 춘천시립 등에서 객원지휘와 강단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with Steve Dobrogose, 세상은 하나, 가을 이야기, 음악이 주는 기쁨 등 총4부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단원들과 울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지휘와 음악적 해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휘자 / 김순정**

지휘자 김순정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에서 교회음악 석사과정과 합창지휘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Dr. William Dehning, Dr. James Vail & Dr. David Wilson 사사).

또한 UCLA 교수 시며, 세계적인 합창지휘자이자인 Maestro Donald Neuen이 이끄는 Angeles Choral의 단원으로 합창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유명한 Maestro John Barnett, Hans von Beer & Jong Ho Pak 교수로부터 오케스트라 지휘를 심도 있게 사사받았다.

석사과정을 졸업할 때 합창 & 교회음악과에서 단 한 사람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우수한 학생 상을 받았으며 박사과정 동안은 USC concert choir의 부지휘자로 활동했고 2000년부터 미국명예음악인 협회인 Pi Kappa Lambda의 정회원으로 선정되어 음악적인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성실한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

2008년 귀국 후, 국립합창단, 부천 필 코러스, 성남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 제주 콘서트콰이어를 2회 객원지휘 하였으며 서울시합창연합회가 주최한 합창지휘자 및 교회음악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받았다. 2011년 국립합창단 부 지휘자를 역임하였고 현재 장신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건국대, 경인교대, 성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 드럼 / 강우철**



*** 베이스 / 김영현**



*** 색소폰 / 박시훈**

● 프로그램

- I. with Steve Dobrogosz
Kyrie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Steve Dobrogosz
Lux aeterna (영원한 빛) / Steve Dobrogosz
- II. One World (세상은 하나)
Te Quiero (당신을 사랑합니다) / Alberto Favero / arr. L. Cangiano
Noche de Lluvia (비 내리는 밤) / Sid Robinovitch
Cantar! (노래하자!) / ay Althouse
- III. 가을 이야기
못잊어 / 조혜영
바람이 분다 / 이범준
첫눈 오는 날 만나자 / 김준범
- IV. Joy of Music (음악이 주는 기쁨)
How Sweet the Sound (그 부드러운 음성) / arr. Mark Hayes
I Got Rhythm (나에겐 리듬이 있네) / George Gershwin / arr. Mark Hayes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2013 수능음악회



* 지휘 / 구 천

수능음악회는 수능 시험을 치른 후 지친 심신을 격려하고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해 성인으로 발돋움하는 울산지역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음악회로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을 받아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여 클래식 공연감상의 기회와 공연장에서의 관람예절을 익히는 등 예술적 체험과 더불어 교과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수능음악회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은 고전적이고 학술적인 음악의 틀을 벗어나 오페라, 팝송, 가곡 등 재미있고 부담 없는 곡들을 편곡해 남성, 여성, 혼성합창으로 구 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연주한다.

2013. 11. 19(화), 20(수)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구 천 (예술감독 겸 지휘자)
- 출연 : 울산시립합창단
- 입장권 : 전석 초대(학교 단체신청)
- 등급 : 울산지역 내 고등학교 고3학년 학생 대상
- 문의 : 226-8273~9

● 프로그램

- Renaissance
Thomas Morley / Fyer, fyer
Palestrina / Sicut Cervus
- 여성합창
이선택 / 목련꽃
Paul McCartney / Let It be
Richard Carpenter / Yesterday once more
- 남성합창
German folk / Muss I denn
Fred Parris / In the still of the night
정덕기 / 북어
김준범 / 산낙지
- 합창 음식
정덕기 / 시래기
이순교 / 짜장면
- 오페라 마술피리 하이라이트

울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2013 수능 음악회

수능시험을 마친 울산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초대해서
클래식 악기로 표현되는
실제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클래식 음악에
대한 흥미유발과 학과 공부로 지친
수험생들에게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지휘 / 김종규



* 협연/지성호

2013. 11. 26(화)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휘 : 김종규(지휘자)
- 출연 : 울산시립교향악단
- 협연 : 지성호(악장)
- 입장권 : 전석초대(선착순 접수)
- 등급 : 울산지역 내 고등학교
고3학년 학생 대상
- 문의 : 226-8273~9

•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이작품은 1901년부터 1907년 사이에 작곡됐는데 여기에는 다음 5곡이 편곡되어 있는 관현 합주를 위한 행진곡집이다. 제1번 D장조(희망과 영광의 나라) 제2번 a단조, 제3번 d단조/제4번 G장조(자유의 노래) 제5번 C장조, 그 중에서 제 1번이 많이 연주되고 있다. 이곡은 군대 행진곡인 동시에 연주회용의 예술적 작품이기도 하다.

• 비발디/사계 중 “겨울”

제 1악장 알레그로 f 단조 4/4 박자 겨울의 심한 추위와 휘몰아치는 바람이 묘사된다. 처음에 싸늘한 눈에 덮여 펴고있는 것처럼 시작되었다가 처절한 바람으로 바뀐다. 추위에 못이겨 발을 동동 구르며 달려간다. 바람은 더욱 사나와져 솔로와 합주가 뒤엉킨다. 이를 달달 떼다. 다시 발을 동동 구르며 악장을 마친다.

제 2악장 라르고 Eb 장조 4/4 박자 처음부터 끝까지 합주 바이올린의 피치카토가 역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나타내고 그것을 반주로 하여 독주 바이올린이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한다.

제 3악장 알레그로 f 단조 3/8박자는 얼어붙은 경치를 묘사하려 한 것으로 얼음 위를 사람이 겁에 질려 엉금엉금 걸어간다 — 미끄러져 넘어진다 — 다시 일어나 달린다. 그러나 얼음이 꺼지고 녹기 시작하였다. 남풍이 불어와서 사람들은 굳게 잠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그러나 다시 격렬한 바람과의 싸움이 되어 최후의 클라이 맥스를 만드는데, 그 속에 봄의 즐거움을 알리며 끝난다.

• 차이코프스키 1812년

1812년 9월,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모스크바를 침공하여 이를 함락시키려 있다. 그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승리를 거두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모스크바 시를 불태워 버렸으므로 나폴레옹 군대는 굶주림과 추위와 기병대에 쫓겨어 패잔병 3만명이 간신히 파리로 물러나는 비참한 패배를 당했다. 이어 러시아는 그 같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큰 교회를 세웠는데, 차이코프스키는 이 축전을 기념하기 위해 1812년 서곡을 작곡하였다. 이 작품은 러시아군이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쓴 것이다. 이 작품이 초연되었을때 교회의 광장에는 대 편성의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었는데, 도중에 북이 나오는 곳에서 포병대의 축포를 쏘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마치 표제음악과 같은 맛이 나는 장엄한 서곡인데, 여기에는 프랑스의 국가와 크레틀린을 암시하는 징소리 등이 교묘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폴레옹 군대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국가 ‘마르세유의 노래’가 단편적으로 나타나며 러시아 국민의 명랑한 기분을 암시하는 민요풍의 무곡의 멜로디 등이 나타난다. 마지막에 러시아의 국가에 뒤섞여 축하의 종 소리가 울려 나오는 비할데 없는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음악이다.



• 바이올리니스트 지성호

서울예고와 연세대 음대 졸업,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를 최고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 하였다. 국립 함부르크 필하모닉 단원과 코리안 심포니, 프라임 필의 객원악장을 역임하였으며 경기도립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역임하였다. 2011년 1월부터 울산시립교향악단 상임악장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강남대 겸임교수 및 연세대, 서울예고, 선화예술중예 출강중이며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앙상블 유림의 멤버로 활동 중 이다.

불후의 명작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8회 정기연주회



2013. 11. 26(화)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지휘 : 김종규 (지휘자)
- 특별출연 : 울산색소폰오케스트라 앙상블
- 입장권 : 전석 1천원
- 등 급 :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 가능

● 프로그램

- 현악합주
 - 멘델스존 / 현악교향곡 제10번
- 한국가곡
 - 신아리랑
 - 내 마음에 강물
 - 금단의 2중창
- 특별출연 / 울산색소폰오케스트라 앙상블
 - 클래식메들리
 - 등대지기
 - 캐롤모음곡
- 전체합주 - 베토벤 교향곡 제5번 2, 4악장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오는 11월 26일(화)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28회 정기연주회를 『불후의 명작』의 제목으로 연주회를 개최한다.

“불후”라는 말은 “썩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며 훌륭한 그 가치가 영원토록 변함없으며 또한 없어지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연주회의 메인곡이 되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에서 제목을 빌어 운명교향곡을 비롯한 멘델스존의 현악교향곡 제10번과 정겨운 한국가곡 및 색소폰 10중주까지 다양한 장르의 명곡들로 관객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회는 지역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연주회 또한 클래식 연주회를 통해 건전한 사고를 가지게 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특히, 악성으로 불리우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으로 그의 천재적 음악성과 장중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면서 음악감상을 통한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특별출연으로는 최근 다양한 연령층의 취미·여가생활에서 큰 인기를 얻고있는 색소폰을 위한 앙상블팀(울산색소폰오케스트라)을 초청하였다. 색소폰 연주는 교향악 연주와는 달리 색다른 음색과 종류별(소프라노색소폰, 알토색소폰, 테너색소폰, 바리톤색소폰) 다양함을 선보일 수 있어 사·청각적으로 유익한 연주회가 될 것이다.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아름다운 비가(悲歌)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예술축제를 찾아서
오페라의 거장 - 리하르트 바그너(V)

Part.2 11월의 공연·전시

11월의 공연·전시 일정



아름다운 비가(悲歌)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비창’

차이코프스키(Tchaikovsky, 1840~1893)의 교향곡 6번 <비창>의 1악장 주제선율이 흐른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다. 우수와 비애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비장하고도 처연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인생에 붙어 닳친 번뇌와 슬픔을 벗어나고자 하는 아련함이 가슴 찢릿하게 하는 이 장대한 비가(悲歌)에서 그의 삶을 느껴본다.

차이코프스키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다. 소심했던 성격에 어린 시절 짝사랑하던 가정교사와 헤어지는 것도 그에겐 크나큰 충격이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10살 때 가게 된 상트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 기숙사도 그에겐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었다. 그런 와중에 깊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던 어머니를 여의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차이코프스키는 그 당시 상상할 수도 없고 용인될 수도 없는 동성애에 빠지게 됐다. 지금도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 러시아에서 동성애는 일종의 범죄행위였고 사회적인 격리와 단죄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차이코프스키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좋아했던 안토니나 밀류코바와 결혼까지 감행했지만 이내 파경을 맞았다. 삶은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했으며 마음 의탁할 곳도 없었다. 바로 그때 예술 후원자로 잘 알려진 폰 메크 부인과 인연이 닿았다. 폰 메크 부인은 매년 차이코프스키에게 6000루블을 지원했는데 이는 러시아 하급 공무원이 받는 연 수입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한창 작곡에 몰이 올랐던 차이코프스키에게 그녀의 재정적 지원은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었고 13년 동안 주고받은 1200여통의 서신은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1890년 10월 갑작스레 끝이 났다. 이들의 결별 배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유력한 추정을 얘기하자면 폰 메크 부인이 자식들에게서 차이코프스키와의 편지 교환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폰 메크 가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동성애 음악가에게 적지 않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면 차이코프스키가 동성애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고 폰 메크 부인은 차이코프스키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1년 치 후원금을 앞당겨 지급하며 자신을 잊지 말라는 의미 있는 문구를 담아 하인 편에 은밀하게 편지를 전달한 후 차이코프스키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때는 이미 차이코프스키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라 지원이 끊긴 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폰 메크 부인과의 정신적 교류 중단은 그에게 음악적 영감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정신적 방황기를 거치게 되는데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비창>은 폰 메크 부인과 헤어진 이듬해인 1891년 미국 연주 여행 중에 구상이 됐다. 이 작품을 들어보면 다른 교향곡과 다르다고 느끼는 게 있을거다. 보통 교향곡은 2악장에서 조용하고 느리게 흐르고, 4악장이 웅장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데 교향곡 <비창>은 정반대다. 2악장은 왈츠 같은 느낌이 들고 4악장은 절망과 슬픔이 극에 달해 한없이 우울하게 끝이 난다. <비창>이 가진 특이함이 그의 당시 심리상태가 아니었을까 싶



은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이코프스키가 교향곡 <비창>을 쓰는 동안 평평 울 정도로 극도의 슬픔과 예민한 감성을 보였다

“지금 새로운 작품을 구상 중이야. 곡을 쓰면서 이것이 내 작품 중에서 최상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구나. 여행 중에 곡을 쓰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몰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1악장을 작곡하는데 겨우 나흘 밖에 걸리지 않았단다.”

교향곡 <비창>을 작곡하면서 차이코프스키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다. 이를 보면 차이코프스키는 이 작품을 작업하며 행복했던 거 같다. 감정기복이 좀 컸을진 몰라도 심리적으로 행복감이 있었고 늘 자신이 없었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비창>만큼은 ‘내 삶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 만족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기라도 한 듯 ‘이 최후의 교향곡이 마치 나 자신을 위한 진혼곡처럼 느껴진다’ 라고 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씨가 됐는지 실제 이 작품 초연 8일 후 차이코프스키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초연 당시 슬픔으로 가득 찬 곡이라 외면 받았던 이 곡이 아이러니하게도 곡 전체를 감싸는 절망적인 비애감과 상황이 맞물려 사후에 더욱 큰 인기를 끌게 됐다. 그리고 워낙 갑작스런 죽음인테라 콜레라라는 공식 사인 발표가 있었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부주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러시아를 휩쓸고 있던 콜레라에 물을 끓여 마셔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콜레라에 걸려 죽음을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비창>의 초연 반응이 좋지 않아서 자살했다는 설도 있다. 또 다른 설로는 소년을 유혹하다 그의 아버지가 고발해 법정에서 자살을 언도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조카에 대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비판해 자살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법대 동문들이 그의 동성애 사실이 알려지면 모교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비소를 마시게 했다는 설도 있는데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그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차이코프스키의 죽음이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음악사의 커다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비창> 전 악장을 다시금 들어본다. 차이코프스키 인생에 스며있는 비탄과 걱정, 그리고 현실 속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의 감정들 속에서 삶의 열정도 아울러 느껴본다. 그리고 느린 악장으로 마무리되는 <비창> 4악장에서 깊은 슬픔에 빠진 차이코프스키의 진한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글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1〉
외젠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La liberté guidant le peuple],
1830년. 캔버스에 유채, 260 × 325 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프랑스 혁명’ 하면 으레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절대왕정이 무너진 1789년의 혁명을 떠올리게 되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혁명이 프랑스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1968년의 5월혁명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역사는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혁명으로 점철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혁명’이라고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점의 작품이 있으니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그림 1)이다. 이는 유로화가 통용되기 이전 프랑스 화폐 중 100프랑 지폐의 뒷면 그림으로 사용될 정도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대표하는 이미지였고, 오늘날에도 종종 패러디를 찾아 볼 수 있다.

위낙 1789년의 혁명이 잘 알려져서 들라크루아의 작품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그 이후 1830년의 7월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프랑스 혁명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심지어 국왕조차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이후의 혼란 속에서 나폴레옹이 혜성처럼 등장했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의기양양하게 유럽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지만 몇 번의 결정적인 패배로 실각하고, 생애의 마지막 6년은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나폴레옹의 하야 후 루이 16세의 동생인 샤를 10세를 내세운 부르봉 왕조가 돌아왔고, 이에 시민들은 격분했다. 그리하여 7월혁명이 발발했다. 이를 통해 불과 사흘 만에 복고왕정이 물러났고, 루이 필립의 입헌군주정이 들어섰다.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이 1830년 7월혁명 중 둘째 날의 격렬한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 어제의 시가전으로 먼지와 포성이 가득한 거리 여기저기에는 무너진 바리케이드 조각이 흩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시신들이 있다. 이런 거리에서 한 여인이 분연히 일어나 민중을 이끈다. 그녀의 손에는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상징하는 삼색기가 들려 있고, 성난 군중이 그녀를 좇는다. 중절모를 쓴 신사와 공장 노동자,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소년에 이르기까지 혁명에 참여한 이들 사이에는 계층과 나이의 구분이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맨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는데다가 맨발로 혁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실제의 사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 프랑스를 상징하는 알레고리인 마리안느(Marianne)임을 암시한다. 해방된 노예를 상징하는 프리기안 모자를 쓴 마리안느는 자유와 이성의 여신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으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중앙에 마리안느를 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삼각형 구도가 보이는 안정적이고 고전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림에도 열정적인 색채와 격렬한 필치, 인물들의 힘찬 움직임, 배경에 보이는 시내의 불길과 연기는 들라크루아 특유의 낭만주의적인 모습을 잘 표현한다.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하는 그림은 대부분 왕이나 장군 같은 지도자의 용맹함과 위대함을 찬양하는 작품이지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역사를 만드는 영웅은 바로 민중임을 보여준다. 이는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화가의 작품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구분 짓는 특징이기도 하다. 가령 혁명군과 정부군의 대치를 주제로 하는 르콩트(Hippolyte Lecomte)의 〈1830년 7월 29일의 로한 거리 전투〉(그림2)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처럼 중심에 지도자를 배치하고 격렬한 전투 장면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지만,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병사들의 모습은 단조롭고 정적이기까지 하다.

그림의 곳곳에는 혁명과 관련된 요소들이 그려져 있는데, 가령 마리안느가 들고 있는 삼색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사용된 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이 깃발은 왕정복고 시기에 금지되었고, 이 날 혁명의 상징으로 다시 한 번 거리에 등장했다. 이는 마리안느의 발치에 쓰러진 남자의 옷 색깔과 화면 왼쪽의 장대에 걸린 동여맨 세 가지 색의 천 묶음, 그리고 화면 오른쪽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노트르담 대성당 위에서 휘날리는 깃발에서 반복된다. 화면 왼쪽에는 정장을 입고 모자를 쓴 부르주아 남성과 셔츠를 풀어헤치고 캡을 쓴 젊은 노동자를, 오른쪽에는 하층 계급의 소년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이 혁명이 계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사회의 지지를 받았음을 드러낸다. 화면 앞에 가로로 길게 누워있는 시민들의 시신은 혁명 중 일어난 희생을 기념하고 강조한다.

들라크루아는 사실 직접 혁명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실제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는 주변에서 들은 혁명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내어 동시대의 사건을 기억하고자 했고, 여기에서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데 주력했을 뿐이다. 들라크루아는 지식인으로서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사명감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했다. 나아가 그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재현을 통해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기념하고 부당한 사회에 반대하는 보편적인 열망을 드러냈다.

3일간의 혁명을 통해 하야한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했고, 루이 필립이 국왕으로 옹립되었다. ‘시민왕’의 7월왕정은 국기를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삼색기로 정하는 등 진보적인 면을 보였지만, 점차 보수적이고 왕정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진보적인 이들은 입헌군주제가 아닌 완전한 공화정을 주장했고, 1832년의 6월항쟁으로 이어진다. 이는 입헌군주제가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던 라마크르 장군의 장례식이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콜레라가 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모인 군중들은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봉기했다. 이는 실패로 끝났고, 프랑스 역사에서는 작은 사건이지만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위고(Victor Hugo)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었다.

클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2〉르콩트, 〈1830년 7월 29일의 로한 거리 전투
「Combat de la rue de Rohan le 29 juillet 1830」〉, 1831년.
캔버스에 유채, 43 × 60 cm, 파리 카르나발레 미술관.



바이킹, 피오르, 오로라, 백야, 노벨 평화상. 바로 ‘노르웨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이번에는 예술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 몇 년 전 국내 라디오 프로그램과 광고음악을 독식했던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Kings of Convenience), 재즈 싱어 잉거 마리(Inger Marie)와 1980년대를 풍미했던 팝 뮤지션 아하(A-ha), 그리고 작곡가 그리그(Grige)와 화가 뭉크(Munch)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Oslo)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딱히 볼 것이 없이 한나절이면 관광할 수 있는 인기 없는 곳으로 통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직항편이 없고, 그야말로 살인적인 물가는 오슬로 여행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만들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오슬로에 가고 싶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뮤지션들을 좋아하는 데다, 무엇보다 올해는 뭉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전시회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한 번 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살아야죠?!

북유럽으로 날아가다

국내에서는 북유럽을 찾는 여행객들이 많지 않아서인지 각 나라의 수도 입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헬싱키를 제외하고는 인천 발 직항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을 운항하는 대다수의 항공사는 오슬로 행 항공편이 있기 때문에 경유 편을 이용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유럽 각지의 축제에 맞춰 여행하느라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오슬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오슬로까지도 가장 빠른 기차가 꼬박 6시간이나 걸립니다.



맘 같아서는 비슷한 가격의 저가항공을 타고 싶지만 짐을 들고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에도, 검색대를 통과하는 일에도 지치는 북유럽의 숲을 달리며 실컷 사색에 빠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네 명이 마주보고 앉아 하는 스웨덴의 기차 좌석은 삼나무처럼 기다란 다리를 지닌 북유럽 사람들과 앉기에는 어찌나 불편하던지요. 게다가 공연기행이 길어지면서 ‘여행’이 아니라 ‘이동’을 하는 것 같아 몸도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계획과 달리 사색이 아니라 자학으로 버틴 6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오슬로 중앙역에 도착해 인근에 잡아둔 숙소를 찾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두리번거립니다. 짐은 줄이고 줄여도 왜 이리 무거운지.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두 눈에 눈부신 피사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오슬로의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오랜만에 브라우저를 켜고 곧바로 오페라하우스로 달려가 일단 티켓박스부터 찾았습니다. 오늘 공연은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국제학생증이 있었던 저는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오슬로에서 우리 돈으로 2만원에 3층 발코니 석을 확보했습니다. 학생증 없이도 살 수 있는 같은 가격의 스탠딩 석은 무대를 바로 볼 수 있다는데, 체력이 약한 저는 시야 제한이 있을 발코니 석에 만족하기로 합니다. 오슬로에서는 공연보다 공연장이 목적이니까요.

자, 이제 공연장을 구석구석 살펴볼

까요? 지난 2008년 새로 완공된 오페라하우스는 오슬로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해안가에 자리 잡은 오페라하우스는 마치 빙하가 물에서 떠오르듯 하얀 몸체를 비스듬히 바다와 접하고 있는데, 이 사선의 평면 덕분에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옥상정원까지 이동할 수 있죠. 신기함에 건물 앞뒤 위아래를 탐색하던 저는 뜨거운 햇살을 피할 곳 없어 이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햇빛에 굶주린 북유럽의 젊은이들은 공연과는 무관하게 이곳에서 평범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신나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요. 무척 자유분방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 벽을 타며 스케이트를 타거나 드러누워 있는 형상이니까요. 내부로 들어서 중앙으로 이동하면 15m 높이의 대형 유리창을 통해 오슬로의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티켓박스며 편의시설, 공연장 입구 모두 무척이나 모던한데, 외벽의 흰색 화강암, 대리석과 달리 내부는 목재로 아늑함과 음향 효과를 높였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100년 이상 된 오페라극장만 봐서 일까요? 메인 오디토리움의 쾌적함을 접하니 신이 날 정도입니다. 게다가 와이파이가까지 잡히네요. 발코니 석도 여느 오페라극장과 달리 의자 자체가 무대를 향해 사선으로 설치돼 있어 몸을 비틀 필요가 없고, 세 줄 이상은 놓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든 냄새가 기분 좋게 묻어납니다.

공연은 어땠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솔직히 지금껏 봐왔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최하였습니다. 런던에서 최정에 부대의 공연만 봐왔으니 그럴 만도 하지만, 발레는 ‘선의 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오슬로의 선들은 넉넉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고전 발레의 교과

서로 불릴 만큼 유난히 턴과 고정 동작이 많아 무용수들의 기량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들에게서는 어떤 치열함 보다는 '그냥 춤을 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꽤 미흡했던 무대를 보고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재밌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까다롭게 살았나...?' 생각지 못한 의문을 품고 공연장을 나서니 바깥은 놀랍도록 환하네요. 낮선 곳에서 홀로 공연을 볼 때는 늦은 귀가 때문에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 오슬로의 밤은 이방인의 마음을 안심하게 합니다.

평화로운 그곳에서 홀로 절망에 빠진 몽크

주요 편의시설과 쇼핑몰, 독특한 멋을 지닌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밀집된 카를 요한 거리를 걷다 보면 국립 미술관도 찾을 수 있는데, 이곳에 바로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화가 에드바르 몽크(Edvard Munch)의 <절규>가 전시돼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명 화가들의 작품과 달리, 몽크는 많은 작품을 오슬로시에 기증했기 때문에 국립 박물관과 몽크 미술관을 방문하면 그의 대다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13년은 몽크 탄생 150주년으로, 'Munch 150'이라는 특별 행사가 6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덕분에 별다방 커피 한 잔이 만 원인 오슬로에서 2만6천 원인 몽크 패스를 구입할 경우 이들 갤러리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몽크는 19세기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죠. 개인의 내면을 강렬한 색채와 뒤틀린 모습으로 그려냈는데요. 그 선두에 있는 작품이 <절규>입니다. 영어 제목은 <스크림(The Scream)>인데, 개인적으로는 '스크림'보다 '절규'라는 단어에서 묻어나는 절박함이 좋습니다. 오슬로에 가기 1년 전, 저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몽크 특별전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때 <질투> <마돈나> <뱀파이어> 등 몽크의 주요 작품들을 보면서 그의 요동치는 심상이 피부에 와 닿았고, 언젠가 오슬로에 가면 몽크를 탐하리라 결심했죠. 에든버러에서 봤던 <스크림>은 1895년 작품인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1893년에 제작된 <절규>와는 색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몽크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기술과 색깔을 이용해 여러 차례 시도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절규>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해지는 강가를 걷던 그는 구름이 핏빛으로 물들면서 자연을 꿰뚫고 지나가는 절규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침을 정말 들었고, 색채들이 비명을 질렀다

고요. <절규>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관광도시가 아닌 오슬로의 미술관은 런던의 내셔널갤러리나 파리의 루브르박물관처럼 붐비지 않는데요. 덕분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절규> 앞에 앉아 넋을 잃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곳에서 홀로 혼동에 휩싸인 그. 몽크는 스스로를 병약하고 광기어린 사람으로 규정했는데요. 실제로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나의 죽음, 이후 뒤따르는 가난과 잦은 병치레로 악몽과 불행의 이미지가 몽크를 사로잡았습니다. 화가로서 첫발을 내딛으면서 만난 연인은 그에게 첫사랑의 감정을 일깨우지만 몽크의 절절한 순정과 달리 너무도 자유분방해 쓰린 상처를 남기고, 이후에도 그릇된 사랑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 몽크는 평생 끊임없는 애증과 질투, 의심에 사로잡히죠. 전 생애 작품을 관통하는 아픔과 죽음, 사랑과 실연, 질투는 그의 절규하는 내면을 쏟아낸 것이 아닐까요. 이토록 평화롭고 넉넉한 오슬로에서 말이죠.

오슬로의 배짱이 같은 여유로움

미술관을 나와 193점의 조각 작품이 있다는 비겔란 공원까지 유유자적 산책에 나섰습니다. 훔날리는 햇살, 파스텔 톤의 고풍스러운 건물, 우거진 나무숲과 공원. 햇살이 귀한 북유럽에서는 햇빛만 났다하면 사람들이 훌러덩 옷을 집어 던지고 벌러덩 드러눕는지, 잔디밭을 모래사장 삼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합성 중입니다. 지금은 평일 오후 4시인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여든 것일까요? 쏟아지는 원유와 풍부한 바다자원 때문에 2012년 기준 노르웨이의 1인당 GDP는 10만 달러에 육박,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려 5배 수준이네요. 그래서일까? 길을 헤매며 만난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절하고 여유롭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인지 굳이 치열하게, 안달복달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용수들의 선이 조금 우아하지 않고 흐트러지더라도 혹독한 비평 대신 기분 좋게 박수로 마무리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참, 오슬로는 볼 게 없다고요? 오페라하우스와 몽크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니까요!

클 윤하정

KBS 앵커, TBC 방송기자등 방송활동과 YES24공연매거진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 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 중이다.



리하르트 바그너(V)

마틸데 베젠동크와의 사랑으로 인해 당시 한창 바그너가 열중해있던 <지크프리트> 작곡을 제2막에서 중단하게 된다. 바그너는 자신이 이전부터 구상하던 <트리스탄과 이졸데> 대본을 1857년 9월 완성하여 마틸데에게 헌정한다. 마틸데는 이 대본에 감명을 받아 5개의 시를 쓰고 이 시에 바그너가 음악을 붙여 '베젠동크 가곡집'이 탄생하게된 것이다. 이 베젠동크 가곡집 중 두 곡은 부제 자체가 <트리스탄과 이졸데로의 습작>이라 되어 있을 정도로 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와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 가곡집 역시 두사람의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고뇌가 깊이 반영된 절정의 작품이다.

곧이어 바그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작곡에 전력을 기울인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마틸데와의 사랑과 고뇌에서 탄생된 것이긴 하지만 바그너는 훨씬 이전부터 이 중세 전설을 오페라로 만들고 싶어 하였고 1854년 리스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작품의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두사람의 사랑은 곧 마틸데 남편 오토 베젠동크와 바그너 부인 민나에게 발각이 된다. 더 이상 아꼈을 수 없게 된 바그너는 1858년 8월 취리히를 떠나 홀로 베네치아로 옮겨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계속 작곡한다. 하지만 베네치아에서도 계속 머무를 형편이 못되어 다시 1859년 3월 스위스 루체른으로 옮겨 그해 8월 <트리스탄과 이졸데> 총보를 완성한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케스트라 스코어만도 1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스케일과 음악적인 복잡성을 지닌 놀라운 작품을 완성한다.

하지만 아직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망명자 신세의 경제적인 빈곤에 허덕이던 바그너는 결국 취리히로 다시 돌아와 오토 베젠동크의 도움을 얻게 된다. <반지> 완성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내는데, <반지>악보 판매 수익권은 베젠동크에게, 바그너는 공연 수익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한다.

바그너는 자신에게 쓰라린 참패를 안겨주었던 파리 무대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 1860년 초 바그너는 자신의 오페라 관현악 발채작품들로 꾸민 연주회를 개최하여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제외하고는 좋은 반응을 얻게 된다. 베를리오즈조차도 <트리스탄과 이졸데> 서곡은 이해를 못하였다.

파리에 있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1861년 3월 나폴레옹 3세가 참석한 가운데 <탄호이저>가 파리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바그너는 당시 파리의 관습대로 오페라 2막을 발레로 꾸미지 않고 1막 첫부분에 발레를 삽입하여 파리오페라극장 관객들에게는 낯선 작품이었다. 또한 <탄호이저> 파리공연을 적극 도운 쪽이 오스트리아 대사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적대관계에 있어 파리의 극우성향의 젊은 부르조아 귀족관객들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파리 초연 때 엄청난 야유와 언론의 처참한 평가로 이어지면서 <탄호이저>는 두 번의 공연만으로 막을 내렸다. 파리 공연의 대실패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오스트리아 궁정 내에 바그너를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들이 생기는 계기가 된다.

1862년 3월 바그너는 조국 독일로부터 완전 사면을 받는다. 바그너는 마인즈 근교 비브리히에 거처를 정하고, 1845년부터 구상하던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대본 집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완성한다. 이즈음 훗날 바그너의 아내가 되는 코지마가 당시의 남편인 유명한 지휘자 한스 폰 뷔로(1830~1894)와 함께 바그너를 방문한다.



같은 해 마인츠와 빈에서 <뉘른베르그의 마이스터징거> 대본 낭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바그너는 자신에게 혹평을 서슴지 않은 유명 음악평론가 에두아르트 한슬리크(1825~1904)를 <뉘른베르그의 마이스터징거>에서 우스꽝스러운 등장인물 베크메셔에 견주었다. 바그너는 자신을 주인공 한스 작스에 비유하여 예술적 창조력이 풍부하며 독일 국민정신이 충만한 마지막 인물로 묘사한 반면, 상대역의 베크메셔는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시민적인 속물로 비유를 하였다.

대본 낭독회에 참석한 한슬리크는 이를 당장 알아채었고, 그의 엄청난 분노는 반 바그너파의 선봉장이 되게 한다. 바그너의 명성이 차츰 높아지면서 추종자들과 반대파들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특히 빈에서는 이들은 극심한 대립을 한다. 바그너 숭배파로는 안톤 브루크너와 후고 볼프, 반대파는 한슬리크와 브람스가 대표인물이다.

1863년 빈 외곽 펜칭에 거처를 정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전지역을 돌며 연주회 지휘활동을 한다. 하지만 바그너는 언제나처럼 그의 호사스러운 생활습관과 낭비벽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결국 빚쟁이를 피해 도망치듯 빈을 떠나게 된다. 이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누군가 나서서 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렇듯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있던 바그너에게 예상보다 훨씬 앞서 구원의 손길을 뻗친 이는 바이에른의 국왕 루트비히 2세(1845~1886)였다. 바그너의 음악에 일찍이 심취해있던 그는 1864년 즉위하면서 바그너의 빛을 갉아주고, 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다. 1865년 뮌헨 근교에 있는 슈타른베르크 호수가에 저택을 제공한다. 왕은 드레스덴의 건축가 고트프리트 쟬퍼에게 <반지> 상연에 적합한 극장을 디자인하라는 주문을 한다. 바그너와 젊은 왕은 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바그너 음악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실현시켜나간다. 이즈음 코지마가 가까워져서 1865년 4월 바그너와 코지마의 첫딸 이졸데가 태어난다.

한스 폰 뷔로는 자신의 젊은 아내와 바그너의 불륜을 알면서도 1865년 6월10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뮌헨 궁정극장에서 지휘를 맡아 초연의 대성공을 이룬다. 참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초연이었다. 바그너는 이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 파리, 비엔나 등지에 공연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고, 비엔나에서는 리허설만도 70여 차례를 하였지만 공연이 불가하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났을 뿐 공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제 루트비히왕의 후원으로 작곡을 완성한 지 6년 만에 초연이 성사된 것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중세 시인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의 작품에서 소재를 얻어 이야기의 중심부만 극에 도입하여 바그너가 대본을 작성하였다. 이 극은 외면적인 사건을 단순화하고 주인공 두사람의 사랑을 통해 내면적인 세계를 그리는데 집중하고있다.

음악적으로는 이전의 바그너 작품보다 훨씬 철저히 유도동기를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무한선율은 작품 속에 쉽 없이 깊게 녹아들며 시와 음악이 하나가 된다. 반음계와 불협화음을 빈번히 사용하며 이 기법을 이용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사랑의 황홀함이 가져다주는 관능성을 성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리하르트 바그너>



<한스 폰 뷔로>



<마틸데 베젠동크>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히 2세>



<에두아르트 한슬리크>

클.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Performances

2013년 교과서 음악회

일 시 | 11.1(금)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광역시교육청

■ 공연개요
교원과 학생들의 사제동행 행사로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을 실제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친밀하게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연임

- 작품내용
- 즉흥 환상곡
 - 오 솔레미오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 사랑의 인사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외 다수

한국전통민요협회 울산지부 제7회 정기공연

일 시 | 11.2(토) 18: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0
주 최 | 한국전통민요협회

■ 공연개요
울산 12경을 소재로 연극, 소리, 춤이 어울려져 퓨전 창작소리극으로 알기 쉽게 울산을 홍보하고자 함

- 작품내용
- 아름다운 울산 12경을 소재로 퓨전 창작 소리극
 -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간절곶
 - 몽돌이 파도에 부딪혀 검은빛으로 아름다운 강동주전
 - 태화강 푸른물에 우뚝 선 선바위
 - 여울목에 용내린 듯 펼쳐진 십리대밭 등

제4회 인사운드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2(토)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인사운드 윈드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2010년 창단하여 4번째 맞는 인사운드 윈드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로 울산을 이끌어 갈 음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음악단체의 공연

- 작품내용
- SEDONA
 - IN THE WINTER OF 1730
 - INVICTA
 - DANCING AMADEUS
 - STEVIE WONDER
 - 애니메이션 메들리 등

제14회 청소년무용제

일 시 | 11.2(토) 15:00
장 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무용협회

■ 공연개요
전국 청소년들의 기량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무용제

제10회 프리모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3(일)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프리모 청소년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울산에 거주하는 초, 중, 고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팀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목적을 둠

- 작품내용
- 놀람 교향곡(하이든)
 - 리베르 탱고(피아졸라)
 - 까페짜(가르데)
 - 초소의 봄(박위철) 등

S.O.U.L Ensemble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8(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S.O.U.L Ensemble

■ 공연개요
울산시향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SOUL Ensemble의 연주회로 현악 앙상블, 합주 협주곡 등을 연주

- 작품내용
- Phaedeus Pausanias
 - Aristophanes
 - Erixqmathus
 - Agathon
 - Socrates Alcibiades 등

울산농요복원재연공연

일 시 | 11.9(토) 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농요보존회

■ 공연개요
논 갈고, 물 푸고 모심기, 논매기 타작소리 옛날 추억을 담은 울산 농요복원 재연공연

- 작품내용
- 첫째마당(보리 타작소리)
 - 둘째마당(논갈고, 물 푸고, 논 썬 소리)
 - 셋째마당(모찌는 소리)
 - 넷째마당(모심기 소리)
 - 다섯째마당(논매기 소리) 등

김미경 소리콘서트V "창작판소리-울산이야기"

일 시 | 11.10(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김미경 판소리연구소

■ 공연개요
진정한 소리의 멋과 흥에 빠져보고, 부르며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소리 축제를 만들것자 함. 특히 울산에서 한번도 공연하지 않았던 수궁가를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흥겨운 소리판의 세계로 안내

- 작품내용
- 판소리(춘향가 중 사랑가)
 - 구름이 있는 시나위

- 남도잡가(흥타령)
- 입체판소리(홍보가 중 박타령)
- 남도잡가(화초사거리)
- 민요(성주풀이, 남한산성, 진도아리랑)

울산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12(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광역시소년소녀합창단

■ 공연개요
울산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의 울산시민과 함께 하는 가족합창 음악회

- 작품내용
- 합창(음악극), 특별공연 등

울산학춤보존회 정기공연"반구대의 학"

일 시 | 11.13(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울산학춤보존회

■ 공연개요
신라시대 울산 사람들은 학을 신성시 하여 계변천신 설화를 창조시켰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울산 사람은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 문화를 창조하였다. 울산학춤 정기공연을 통하여 울산학춤 활용 가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작품내용
- 제1장 : 반구대의 학(선화하는 반구대 화학암의 학)
 - 제2장 : 태화강의 학(비상하는 학천암의 학)
 - 제3장 : 울산의 학(태평성대)

김남숙 참소리국악원 제1회 정기발표회

일 시 | 11.15(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김남숙 참소리국악원

■ 공연개요
선인들의 열과 혼이 담겨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가야금병창 및 우리가락 흥과 신명을 알리고자 함

- 작품내용
- 사물놀이
 - 가야금병창
 - 한국무용(한량무)
 - 남도민요
 - 가야금연주 등 다수

울산 YWCA 여성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16(토) 19: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 YWCA

■ 공연내용
창단31년을 맞은 울산YWCA합창단의 정기연주회로 합창단이 쌓아 놓은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고 지역시민들에게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작품내용

- 사랑(조성은)
- 나의 기쁨
- 아리랑 모음곡
- 클라리넷 독주
- Mamma mia Medl

제12회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17(일)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 공연내용
매년 두 번의 정기연주회로 울산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작품내용
 - La Forza del Destino (G. Verdi)
 - Latin Gold (Arr. John Wasson)
 - Scenes Form Swan Lake (P.Tchaikovsky)
 - Chicago (John Kander) 등

제7회 울산색소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17(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색소폰오케스트라

- 공연내용
- 색소폰을 통해 울산시민 정서함양 및 색소폰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작품내용
 - 나의 조국
 - Instant Concert
 - When a child is born 외 4곡
 - Viva Italia Czardas
 - 방아타령, 강변 살자 등

글리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19(화) 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글리앙상블

- 공연내용
명작(名作)이라는 주제로 무반주 합창곡과 현대적 Jazz Mass(드럼 킷과 더블베이스 합주), 그리고 가을의 정취를 가득담은 한국가곡, 오페라 아리아를 남성중창으로 선보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회
- 작품내용
 - Sacred Contemporary Music I
 - Saced Concert Music II
 - 가을의 향기
 - Viva Opera
 - Broadway Styie 등

열려라 클래식"오페라의 거장 베르디"

일 시 | 11.21(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학생 8,000
주 최 | 울산오페라단

- 공연내용
평소 어렵게만 느끼지는 클래식 음악을 작곡자

별로 테마를 정해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실제 연주 감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작품내용
 - 관악앙상블
 - 성악연주, 피아노연주, 현악앙상블
 - 중창연주, 합창연주 외 다수

제4회 참소리 가야금 연주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1.22(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참소리가야금연주단

- 공연내용
비전공자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모임의 국악 순수창작공연으로 국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국악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작품내용
 - 강태홍류 짧은 산조
 - 울산아가씨
 - 판소리
 - 아리랑 2중주
 - 가야금 병창 등

제24회 울산합창페스티벌

일 시 | 11.23(토) 13:00/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음악협회

- 공연내용
울산지역 민간 합창단체 및 시립합창단 음악 회원들의 합동공연
- 작품내용
 - 1부(15:00) : 주니어 합창단 공연
 - 2부(19:30) : 시니어 합창단 공연

제3회 남성합창단 울산내 정기연주회

일 시 | 11.23(토)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남성합창단 울산내

- 공연내용
관내 남성합창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로 다양한 합창음악을 선보임으로써 지역합창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작품내용
 - 일어서라 용사여, 병사들의 합창, 투우사의 노래
 - 실내악단 연주
 - Dona Nobis Pacem, 장라신느의 찬가
 - 소프라노(테너)독창, 2중창
 - 신아리랑, 새야새야 파랑새야, 경북궁 타령 등

제13회 삼신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1.24(일) 17: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삼신원드오케스트라

- 공연내용
- 울산 대표 관악합주 단체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 관악합주, 행진곡, 서곡, 영화음악, 가요, 팝송

등을 망라한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연주

- 작품내용
 - Brige on the Border
 - Akansas
 - Voyage
 - Critical Mass 등"

제4회울산다문화합창단 정기공연 및 문화의 밤

일 시 | 11.24(일) 18: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다문화가정사랑나눔회

- 공연내용
10개국의 다문화 회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다문화합창단 공연과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및 다문화 국가들의 각 나라의 전통문화를 울산시민에게 소개함
- 작품내용
 - 울산소년소녀합창단 공연
 - 울산다문화합창단 공연
 - 필리핀 민속무용
 - 일본민속무용 등"

힐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일 시 | 11.29(금)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 · 30,000/S · 20,000/A · 10,000
주 최 | 울산문수오페라단

- 공연내용
그림 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바탕으로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오페라공연

제5회 클래식 음악제

일 시 | 11.29(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음악협회

- 공연내용
울산 지역의 아마추어 클래식 연주자와 음악협회 회원들의 음악적 교류를 통해 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오케스트라 협연 공연
- 작품내용
 -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
 -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독창
 - 중창, 합창
 -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수

제10회 울산아이노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1.30(토)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아이노스합창단

- 공연내용
아이노스합창단의 열 번째 정기연주회로 어렵게 여겨지는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편곡하여 오페라 갈라콘서트 및 합창 연주들과 함께 공연하고자 함
- 작품내용
 - 오페라 갈라콘서트
 - 마이스터고등학교 합창단
 - 울산 양육원 합창단
 - 합창 연주 등

Exhibition

울산서예협회 초대작가전

기 간 | 11. 7(목)~11. 12(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울산서예협회

■ 전시내용

한국서예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초대작가들의 한글, 한문, 문인화 등 다양한 서예작품 100점 전시

제4회 철매반죽 사진전

기 간 | 11. 7(목)~11. 12(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철매반죽

■ 전시내용

철매반죽 회원들의 단체전으로 울산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작품 50점 전시

제6회 포토라이프클럽 정기전

기 간 | 11. 7(목)~11. 12(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포토라이프클럽

■ 전시내용

포토라이프클럽의 여섯 번째 정기회원전으로 실험적이며 창작적인 다양한 장르의 사진작품 60점 전시

제12회 울산매일 보도사진전

기 간 | 11. 7(목)~11. 12(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울산서예협회

■ 전시내용

울산매일신문사의 제12회 보도사진전으로,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각종 사건, 사고, 시사적인 사진작품 60점 전시

제5회 경상사진동우회 회원전

기 간 | 11. 14(목)~11. 19(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경상사진동우회

■ 전시내용

태화강 일백리에 스며들어있는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재조명 하고, 울산의 정신과 맥을 사진작품을 통하여 표현하는 사진작품 60점 전시

제7회 반구대전

기 간 | 11. 14(목)~11. 19(화), 6일간
장 소 | 제2,3전시장
주 최 | 한국서각협회 울산지회

■ 전시내용

한국서각협회 울산지회의 일곱 번째 정기회원전으로 울산의 자랑인 반구대 암각화를 널리 알리고자 회원 40명의 전통 및 현대 서각작품 100점 전시

제21회 울산전국사진공모전

기 간 | 11. 14(목)~11. 19(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울산사진작가협회

■ 전시내용

제21회 울산전국사진공모전 작품을 공모·접수하여,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등의 입상작품 100점 전시

울산사진씨클연합회 합동전

기 간 | 11. 21(목)~11. 26(화), 6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울산사진씨클연합회

■ 전시내용

회원 상호간의 교류의 장 마련과 사진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울산사진씨클연합회 13개 씨클이 한 해 동안 활동한 대표 사진작품 250점 전시

제12회 뉴비전사진동호회 회원전

기 간 | 11. 28(목)~12. 3(화), 6일간
장 소 | 제1전시장
주 최 | 뉴비전사진동호회

■ 전시내용

뉴비전사진동호회의 열 두 번째 정기회원전으로 울산시민 100명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작품 100점 전시

제18회 울산중등미술교사 작품전

기 간 | 11. 28(목)~12. 3(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울산광역시교육청

■ 전시내용

울산중등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와 학습자료 개발의 결과물인 미술,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 50점 전시

당신의 불링불링한 ART 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비상 당일의 기세에 걸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걸은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예술
가운데에서 버려져 있는 것은
문명보다 예술가만이 함께 합니다.

☀️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4인가족)	가족회원 (4인가족)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시 30% 할인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혜택 부여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객원지휘자 초청

음

악이
주는

Joy of Music

기쁨

2013. **11. 5**(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